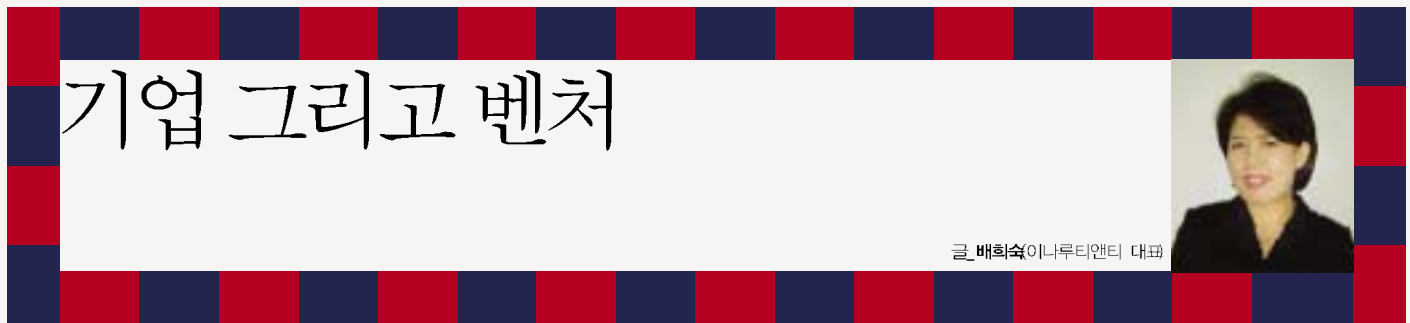


“미래를 내려다보면 까바득하고 위를 올려다보면 구름에 가려서 정상이 어디쯤인지 짐작이 되지 않는다. 벤처기업 CFO의 길은 절벽을 올라가는 등반가의 심정이다.”

벤처업계의 양심으로 불리는 안철수박사의 말이 생각난다.

5년 전, 40대에 창업을 한다는 것, 더욱이 IT분야에 접근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결정이었다. 당시 투자를 결정할 때는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대중화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무선이라는 첨예한 분야가 두렵기도 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미래는 무선기반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는 직감과 성공 시에는 향후 상용화할 수 있는 응용분야가 많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개발에 착수했다.

당시 ITS를 통한 미래도시 건설비전을 접한 후, 교통신호시스템에 무선기술을 접목하면 상당한 국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교통분야 전문가의 조언으로 일본을 비롯한 ITS선진국에 대한 시장조사가 시작되었다. 엔지니어도 아니었으며 교통에 대해 아무런 경험도 없이 열정 하나로 벤처산업에 뛰어드는 나를 보고 주위에서는 무모한모험이라고 반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마침내 유선에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 있는 무선랜 기반의 차량 검지 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상용화했다. 더불어 국내 여러 도시에 설치가 진행되면서 2005년 제13회 대한민국기술대전에서는 국무총리상(금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은 RF기반의 제품군을 필요로 하게 됐고 드디어 이나루티엔티도 전성기를 맞고 있다.

돌이켜보면 제품을 개발해서 상용화하는 노력에 비해 신기술에 대한 정형화되지 않은 정부규제와 담당 공무원의 이해부족으로 기술개발 후 현장에 접목하기까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터프하기로 평이 난 ITS 시장의 남성중심 펀드문화는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웠으며, 생애 자체가 여성이 마케팅에 나서지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홍일점 CFO라는 점과 완벽을 추구하는 이나루티엔티의 제품은 ITS업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소재였으며 여성 특유의 정직성으로 쌓은 신뢰는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언제나 처음 시작하는 마음이다.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어려움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형엔진을 장착한 이곳 벤처기업협회에는 내공이 깊은 경영 선배들이 있기에 늘 든든하다. 나의 기업청춘을 싣탁우게 해주는 협회... 이 글을 통해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